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달래와 세 아빠』

정보 김형업 글·전다는 그림 | 80쪽 | 190*247mm | 무선 | 12,500원

주제어 가족, 다양성, 이웃, 우정, 공동체

교과 연계

국어 2-1 나 6.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요
국어 2학년 1학기 통합(여름2) 1. 이런 집 저런 집
국어 2학년 2학기 통합(가을2) 1. 동네 한 바퀴
도덕 3학년 1. 나와 너, 우리 함께
국어 4학년 1학기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우당탕탕 달래네, 가족의 역사를 새로 쓰다

‘멧돼지나 놀러 오는 깊은 산골’ 정담마을에 사는 8살짜리 소녀 달래에겐 세 아빠가 있습니다. 엄마는 없지만요. 달래네 가족은 가난해서,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 달래가 학교에 다니려면 ‘가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여긴 외딴 시골인지라,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단 둘뿐이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달래에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복잡한 사정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달래에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커다랗고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아빠가 셋이나 있고, 마음을 풍족하게 해 주는 책처럼 조건 없이 다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칠복이’가 있으며, 달콤한 미숫가루처럼 매일매일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이웃사촌 ‘이장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래와 세 아빠』는 이처럼 특별한 가족의 형태를 가진 ‘달래’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별별 가족이 품고 있을 ‘속내’를 결코 선부르지 않게,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사려 깊음으로 더욱 빛나는 따뜻한 재치로 그려 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쓰는 동화, 『달래와 세 아빠』 안에서 부드러운 햇살처럼 든든하고 힘이 되는 어여쁜 정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차근차근 책 읽기 계획

이 독서 지도안은 10차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 읽을 시간과 토론할 시간을 안배하고,
두세 가지 활동 가운데 가능한 것을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계		차시	활동내용
읽기 전에	책과 첫인사를 나눴어요	1	* 『달래와 세 아빠』는 어떤 책일까요? - 제목, 작가, 표지 등 기본 정보 살펴보기 - 표지를 보고 이야기 만들어 보기
		2	* 하나도 둘도 아닌 세 아빠?! - 이야기의 내용 파악하기
읽으면서	책 속으로 쏙! 들어가요	3	* 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4	* 나는 어떤 가족일까? -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기
		5	* 재미있는 속담 퀴즈 1 - 이야기 속 표현 이해하기
		6	* 재미있는 속담 퀴즈 2 - 이야기 속 표현 이해하기
		7	* 다양한 가족의 조건 - 이야기의 주제 이해하기
읽고 나서	책 밖의 세상과 이어져요	8	* 우리가 가족이 되는 순간 - 등장인물의 마음 이해하기
		9	* 오며가며 이웃사촌 마인드맵 그리기 -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10	* 가족의 울타리를 넓히는 일 - 이야기와 삶을 연결하기

책을 읽기 전 계획과 기본 정보를 다진다.
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그림책을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달래와 세 아빠』는 어떤 책일까요?

◎ 책의 표지를 보고 이 책의 정보를 적어 보세요.



제목: **달래와 세 아빠**

글 작가: **김청업**

그림 작가: **전다운**

출판사: **고래벳속**

◎ 표지 그림을 펼쳐 놓고 꼼꼼히 살펴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책 속에서 펼쳐질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해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표지 안에 (**해맑은 표정으로 자전거를 타는 한 아이를 따라가는 세 아빠**)이(가) 보여요.

내가 상상하는 책 속 이야기는...

특별한 세 아빠를 가진 달래라는 아이의 시트콤처럼 유쾌한 일상 이야기

담겨 있을 것 같다. 아빠가 세 명이나 되니, 하루하루 시끌벅적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한다.

하나도 둘도 아닌 세 아빠?!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달래에겐 누구보다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아빠가 셋이나 있어요. 처음 달래와 세 아빠 이야기를 만났을 때 느낀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적어 보세요.



**달래와 세 아빠 가족을 처음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한 가족 안에 아빠가 셋이나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읽으면서
달래가 세 아빠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따뜻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달래와 세 아빠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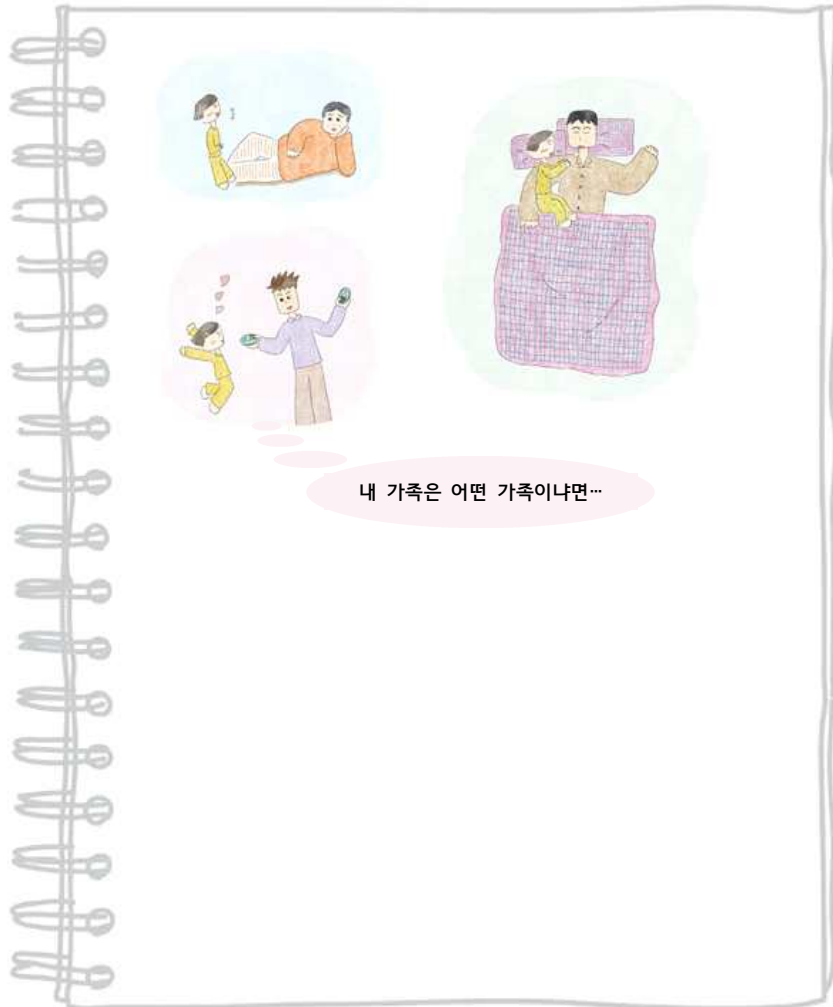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달래에게도,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아주 큰 일상의 변화이다.
달래가 초등학교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마주하면서 세 아빠들과 함께
기쁨도 어려움도 나눈다.

생각을 나눠요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소재에 다가간다.

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 매일 일상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가족을 소개해 볼까요? 그림이나 글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내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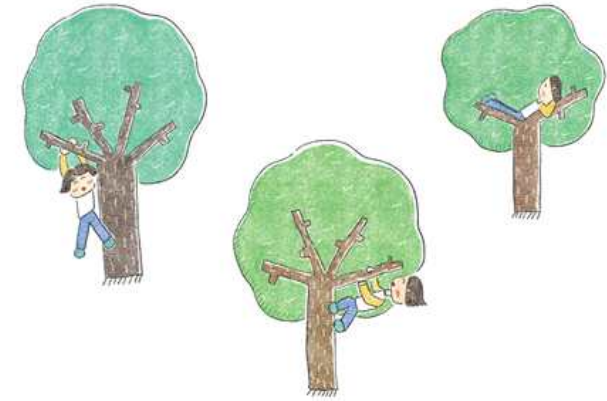


생각을 정리해요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해해 본다.

나는 어떤 가족일까?

◎ 가족들에게 있어 나는 어떤 가족일까요? 가족 구성원의 눈에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과 태도를 되돌아보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가족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 내가 가족에게 평소 자주 하는 말은?

내가 식탐이 많아서 항상 배고프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다.

★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항상 학교와 학원이 끝나고 저녁 드라마를 가족들과 함께 모여 보는데 참 편안하다..

★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은?

평소에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 미안하다.

★ 가족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말은?

놀다 보면 시간을 잊어서 일찍 일찍 다니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 가족에게 내가 해 주고 싶은 것은?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필요한 지식을 배워요

속담의 뜻과 쓰임을 배운다.

재미있는 속담 퀴즈 1

◎ 책 속에서 달래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할 속담을 즐겁게 익혀 봐요. 달래가 이야기한 속담의 진짜 뜻을 찾아 적어 보고, 이 밖에 재미있는 속담들을 인터넷이나 사전을 통해 공부해 보세요.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뜻 : 평소와 다른 뜻밖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흔히 하는 말이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뜻 : 보통 때에는 하찮게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던 물건도 급하게 쓸 때가 있어 찾으면 없다는 말이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뜻 :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물도 아무 소용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뜻 : 뜻하지 아니한 일을 공교롭게 만나거나, 뜻밖에 일이 잘 들어맞지 않을 때 표현하는 속담이다.

이 밖에 재미있는 속담들을 찾아 적어 보세요.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하찮은 생물이거나 아무리 약한 사람도 화가 나면 무섭게 발끈하고 화를 낼 수 있다.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 말은 발이 없지만 순식간에 퍼진다.



필요한 지식을 배워요

속담의 뜻과 쓰임을 배운다.

재미있는 속담 퀴즈 2

◎ 가족과 관련된 속담을 찾아 마음에 드는 속담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서로의 속담을 알아맞히기 퀴즈를 해 보세요.



☆ 내가 찾은 속담 ☆



☆ 친구가 찾은 속담 ☆

생각을 나눠요

이야기의 주제를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다양한 가족의 조건

◎ 이야기 속에서 달래가 정한 가족의 조건을 찾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달래처럼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조건을 함께 적어 보세요.

“내 생각에 가족은요, 오래 같이 있는 거예요.

집처럼 따뜻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언젠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줘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 조건을 떠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서로를 사랑해야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의 마음을 느껴요

등장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읽을 수 있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순간

◎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위기에 처한 큰아빠와 달래네를 도와주고 옆에 있어 주는 이장님을 보며 달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달래가 느꼈을 감정을 헤아려 적어 보세요. 그리고 결말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장님의 도움을 받으며
달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장님께 무척 고마웠을 것 같다.
그리고 이장님의 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세 아빠의 품에서처럼 따뜻한
온기와 편안함을 느꼈을 것 같다.

책의 결말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의 모양과 색깔은 다양하다는 걸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같은 마을 이웃으로만 알았던 이장님도,
진진아빠와 큰아빠, 막내아빠도 모두가 따뜻한 달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생각을 정리해요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주제를 성찰한다.

오며가며 이웃사촌 마인드맵 그리기

◎ 나의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든든하고 따뜻하게 채워주는 다양한 존재들을 떠올리며 나만의 이웃사촌 마인드맵을 그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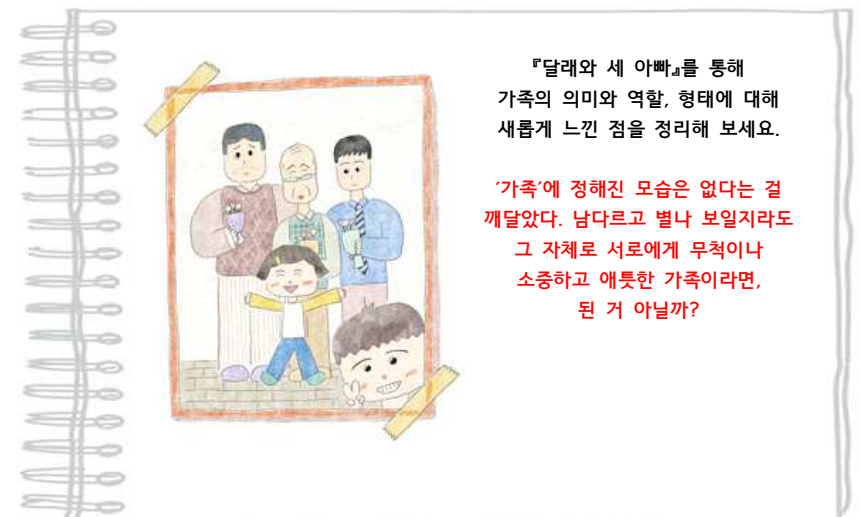


생각을 정리해요

이야기의 주제를 실제 삶에 반영하여 생각해 보는 힘을 기른다.

가족의 울타리를 넓히는 일

◎ 가족의 의미와 역할, 모양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읽고 가족의 형태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을 정리해 보세요.



『달래와 세 아빠』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형태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을 정리해 보세요.

‘가족’에 정해진 모습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남다르고 별나 보일지라도 그 자체로 서로에게 무척이나 소중하고 애뜻한 가족이라면, 된 거 아닐까?